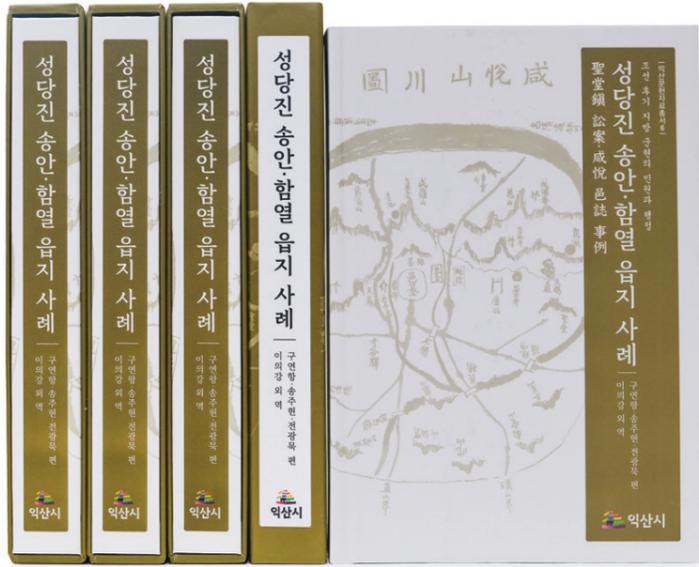


성당진 · 합열 행정 담은 고문헌 번역서 공개

익산시 ·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 익산문헌자료총서 제6권 '성당진 송안 · 합열 읍지 사례 번역서' 발간

익산시가 조선 후기 지역 군현의 행정과 민원 처리 과정을 담은 고문헌을 번역서로 공개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와 함께 익산문헌자료총서 제6권 '성당진 송안 · 합열 읍지 사례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소장한 '송안(訟案)'과 '합열현읍지부사례(咸悅縣邑誌附事例)', '합열현읍지사례(咸悅郡邑誌事例)'를 번역한 것이다.
'송안'은 1888년(고종 25년) 구연항(具然恒)이 성당진(聖堂鎭)의 첨절제사 재임시 8월부터 6개월 동안 처리한 121건의 민원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와 함께 익산문헌자료총서 제6권 '성당진 송안 · 합열 읍지 사례 번역서'를 발간했다.

조운부터 가뭄 피해, 민간 송사, 세금 징수 등 다양한 민원과 처리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돼, 조선 후기 수군진 운영의 일면과 수군 장소의 행정 활동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성당진은 조선시대 해안 방어를 담당했던 군사기지 수군진(水軍鎭)으로, 조선 중기 이후 조창의 거점이었던 성당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885년부터 약 5년 동안 합열현 성당포(聖堂浦) 일대에 존속했다.

'합열현읍지부사례'는 1886년 합열현감 송주현이, '합열군읍지사례'는 1905년 합열군수 전광복이 각각 작성한 읍지와 사례다. 읍지에는 경국대전에 속하지 않은 각 고을의 하위규정, 즉 군현의 준칙으로 고을의 예산이나 행정 등을 처리하는 근거 규정이다.

두 자료는 불과 10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합열지역의 현황과 고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비교하며 읽으면 조선 후기 합열지역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합열현읍지사례에 수록된 '합열군 여행 사례'에는 새로 부임한 합열군수를 맞이하는 여행 의식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수령의 부임 의례와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익산문헌자료총서 제6권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 익산지역 군현의 민원과 행정처리, 규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는 2019년부터 고문헌 번역사업을 추진해 익산문헌자료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학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발간된 익산문헌자료총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db.kci.or.kr)를 통해 2월 중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고문헌 번역사업은 지역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뿐만 아니라 미래가치 발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익산의 고도가치 확장을 위해 고문헌 자료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공문화공간 품격 다시 증명하다

부안청자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 선정... 4회 연속 인증 쾌거

부안군은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부안의 역사와 정신을 품은 박물관이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공공문화기관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상경과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 전시·교육·연구·소장품 관리 등 박물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가 처음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단



한 번의 공백도 없이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부안청자박물관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 요지라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상설·기획전시, 청자 제작 체험,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머물고 공감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군 관계자는 "4회 연속 평가인증은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과 지역사회,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고려청자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박물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임 조직위원장에 최철 21세기병원장 선임

"조직 운영 안정과 축제 내실 다져 다음 도약 준비할 것"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신임 조직위원장에 최철 21세기병원장 대표위원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철 신임 조직위원장(사진)의 선임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전임 이왕준 조직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기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리축제는 후임자 검토 등을 진행했다. 최 신임 조직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 신경외과 임상교수를 역임한 의학박사다.

문화계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고문,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의료인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계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 측은 최 신임 조직위원장이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쌓은 전문성·리더십은 물론 지

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높은 이해 등을 통해 축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축제 25주년을 맞는 만큼 신임 조직위원장과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예술 교류의 장 확대 등 전북의 대표 축제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 신임 조직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성과 동시대성을 함께 품은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그동안 축제가 쌓아온 성과를 존중하고, 조직 운영 안정과 축제 내실을 다져 다음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KBS전주방송총국 신임 총국장에 정인석 심의위원 부임

KBS전주방송총국은 신임 총국장에 정인석(58) KBS 본사 심의위원이 부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인석 신임 총국장(사진)은 전북 부안군 출신으로 전주신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KBS 공채 20기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이후로는 보도국 사회부장, 미 워싱턴 특파원, 디지털뉴스 주간, 방송뉴스 주간, 보도본부 해설위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총국장의 임기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 신임 총국장은 "무엇보다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취임 포부를 전했다. /뉴시스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자진사퇴

(재)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그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에 관한 인사청문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검증 자료 외에 추가자료에 대해 검증한 결과,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행부와 후보자는 군산시의회 인사청

문특별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수용했고, 후보자는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관련된 임명 절차에 대해 자진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단과 시 측은 후보자의 자진사퇴서를 접수하고,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재검토 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